

FTA 근본대책 수립!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우리나라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15일간의 단식농성...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이뤄내

축산관련단체 대표들과 3만여 축산농민이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축산업 회생을 위해 정부, 국회가 앞장서서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9개 축산관련단체가 결성한 FTA 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창호, 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축산농민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쉼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축산업 회생 대책 마련과 영연방(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FTA 국회 비준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각 품목단체 대표자의 투쟁발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우리 식탁에서 수입축산물을 몰아내자'는 축산인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와 함께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에 이어 'FTA로 인해 국내축산업이 사망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실효성 없는 FTA 대책, 게다가 '15년 축산예산 오히려 1.8% 삭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한·미, 한·EU FTA체결로 축산업 피해액만 9.8조원이며 영연방 FTA 체결 시 2조5천억원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지만 정부는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정작 지난 9월 18일 발표된 영연방 FTA 정부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게다가 2015년도 정부 총예산은 5.7% 증액되었으나, 농림·수산·식품예산은 3% 증액에 그쳤으며, 그중 축산예산은 오히려 1.8% 삭감되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적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와 도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회장은 “땀질식 처방, 기존예산 끼워넣기 등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대책은 ‘허울뿐인 개살구’, ‘수박 겉핥기’와 같은 수준으로 축산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축산

업 회생을 위해 정부, 국회가 앞장서서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으로는 ① 정책자금 금리 인하(1%) ②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③ 무역이익 공유제 법제화 조속 처리 ④ 기존 FTA 대책 현실적 보완 ⑤ 영농 상속공제 한도 및 공제 범위 확대 ⑥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국토부, 환경부 협의) ⑦ 도축장 등 1차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전기료 농사용 적용 ⑧ 축산물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예산 지원 ⑨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등이다.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 전달

10·23 축산인 총궐기대회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새누리당 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을 각각 찾아 축산농가 건의문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을 찾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김무성 대표, 김학용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치솟는 사료값으로 대출을 안받는 축산농가가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정책금리 3%는 수년전부터 고정돼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정책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금리 인하는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하고 “FTA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가 약속한 피해대책의 진행여부와 새롭게 추진되는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면서 “축산농가의 건의내용을 정책위원회 의장이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국회, 정부에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거리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청와대 방문, FTA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청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국회를 다시 방문,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우남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축산업의 중장기적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며 “국회 역할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후 11월 4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FTA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축산농민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0·23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 이어

축산단체장의 단식농성 13일째 만에 이룬 성과였다.

그리고 11월 6일, ‘FTA 축산업 회생대책 촉구! 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의를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야·정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축산단체장들은 15일간의 단식 투쟁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축산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축산농가 회생대책 마련과 영연방 FTA 국회비준반대를 위한 15일간의 투쟁일지〉

■ 10. 23(목) - 단식투쟁 시작

-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 비대위 대표들의 단식투쟁 시작





-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방문, 축산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 전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학용 의원 면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백재현 정책위원장,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면담

■ 10. 24(금) - 단식투쟁 2일째

- 비대위는 각 시군지부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

■ 10. 25(토) - 단식투쟁 3일째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격려방문 줄이어...

- 저녁 10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강진)이 농성장을 찾아 축산단체 요구사항 경청

■ 10. 26(일) - 단식투쟁 4일째

밥값도 못하는 농정부처, 무능인가, 의지가 없는가

- 오후 4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전북 정읍)이 농성장 방문, 국회 차원의 대책방안 강구 약속
- 오후 5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방문
 - 축산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의 극한 상황을 정부부처내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이런 식으로 묵살할 거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축산이라는 글자를 빼세요"라고 정부를 향한 분노 표출,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을 전달
 - 이동필 장관은 "뜻을 잘 전달받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

■ 10. 27(월) - 단식투쟁 5일째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적극 검토기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로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을 전달
 - 오후 1시, 축산단체장들 국회 방문,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우남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축산업의 중장기적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청
 -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며 "국회 역할은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
 - 오후 2시, 축산단체장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 면담, 축산업 회생 대책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
 - 김동철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농림축산식품위원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
 - 오후 3시,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서구, 강화읍) 농성장 방문, "국정감사 시 농식품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와 FTA 추가보완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답변
- #### ■ 10. 28(화) - 단식투쟁 6일째
- 국회, 청와대 방문... 여·야·정 협의체 구성 촉구 호소
- 오전 11시, 축산단체장들은 이한성 국회의원(문경, 예천) 방문, 여·야·정 협의체 구성 촉구
 - 오후 2시, 비대위 청와대 방문,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축산인 요구사항과 호소문 추가 전달
 - 오후 4시,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 예산)이 농성장을 방문, FTA 시대에 있어 축산업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축산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가능한 만큼의 노력을 약속

■ 10. 29(수) - 단식투쟁 7일째

단체장들 거동 불편 호소, 날로 초췌해져가...

- 축산단체장들 국회 10여 곳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9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촉구,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나! 갈아보자, 무능정부!' 성명서 발표
- 오전 8시 50분.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농성장 방문,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변
-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농성장 방문,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10. 30(목) - 단식투쟁 8일째

아스팔트 위 희생만 있고, 희생은 없는가?

- 농식품부 실무팀 농성장 방문, 9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발표 - 9가지 요구사항 중 6가지는 농식품부에서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나 지금 당장은 예산수반 문제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간 협의 및 국회의와의 협력이 필요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
-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과 김종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농해수위 야당간사), 박민수 의원, 김승남 의원 농성장 방문, 국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협의하겠다면서 단식 중인 단체장들의 건강을 염려
-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외 관련단체와 임직원, 유관기관 단체장들 위로방문과 각 지역 축산농민들의 위로방문

■ 10. 31(금) - 단식투쟁 9일째

"FTA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오전 11시, 비대위는 FTA 축산업 회생마련을 위한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 및 국회에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납득할 만한 답변 촉구

- 오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농성장 방문,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
-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농성장 방문, FTA대책 국내위원장으로 축산농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 새누리당 김계연 의원(안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 농성장 방문, 국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
-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 외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각 지역 축산농민들의 위로방문

■ 11. 1(토) - 단식투쟁 10일째

생사를 건 단식농성 10일차 "인내심은 끝났다!"

- 비대위, '전국 축산농가 가족반납 투쟁' 등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 검토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외 축산 관계자와 지역 축산지도자들의 위로방문

■ 11. 2(일) - 단식투쟁 11일째

박근혜 대통령은, 11.6일 누구와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인가



•비대위, 박근혜 대통령이 11. 6일 '농업미래토론회' 행사에서 농업 지도자들과 농업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함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 11. 3(월) - 단식투쟁 12일째

축산단체장 응급실행, "해결되기 전에 갈 수 없다" 단식 투쟁 지속 의지 밝혀

- 오후 3시, 이창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병규 한돈협회장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긴급 응급 진료,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응급실행 거절
- 비대위 긴급회의 개최, 5일까지 여·야·정·단(축산단체) 4자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 축산농가 생존권 포기! 가축반납 투쟁'을 전개하기로 재차 결의
-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방문, 11월 6일 안성팜랜드에서 개최 예정인 '농업미래토론회' 행사 무기한 연기했다고 답변
- 새누리당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의원 농성장 방문,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
-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농성장 방문

■ 11. 4(화) - 단식투쟁 13일째

여·야 원내대표,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정례회 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키로 합의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세 번째 농성장 방문,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11. 5(수) - 단식투쟁 14일째

FTA 비대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 면담

- 오전 11시, 비대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호영 의장과 안효대, 이학재, 나성린, 이현재, 윤명희, 김명연 의원과 면담,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FTA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촉구
- 오후 5시, 비대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원회 의장,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 신정훈 의원과 면담, 9대 요구사항 중 우선적으로 무허가축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축산부, 기재부, 산자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축산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 11. 6(목) - 단식투쟁 중단

민의를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야·정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



- 오전 11시, 'FTA 축산업 회생대책 촉구 투쟁 기자회견' 개최, 근본적인 회생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여·야가 선진축산을 구가하는 축산농민들의 민의를 담아내는 결사체가 필요하다고 촉구
- 단식투쟁 중단키로 결정, 그러나 축산농민의 생존권 투쟁은 이제 시작 